

#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끊임없는 진리!

25면에서 계속

참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실천공행을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다 하나를 딱 맡겼으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실험이지 다른 게 실험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참선입니다. 잘 되려고 딱이나 밥이나 해다 놓고 시주를 억만금을 가져다주어도 내 마음 깨닫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공부 하시는 분은 손가락 처럼 거 하나를 갖다가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팔아서 다 갖다 바쳐도, 만약에 기복으로 하신다면 그건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없고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와 나뭇가지와 잎새와 모든 게 한데 어울린 한마음으로 시주를 한다면, 자기 한 것만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떠나서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아무 것도, 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가 애초나 병고나 그 어려운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뒤따르겠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참선을 진짜로 하실 수 있다면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법이 이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들의 법이어서 소립니다. 불가사의한 게 불가사의한 게 아니라 다 소립니다.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다.

몇 년 전 얘긴데, 어떤 사람이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니가 차츰차츰 그 뼈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인체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 마음도 바꿀 수가 있고... 이 도리는 너무 엄청난, 참 광대무변한 도리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총만하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모르는 것뿐이죠. 지수화풍이 바로 광력 통신력 자력, 이 모두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원력이 있다는 결론이죠. 원력이 있는데도 자기를 중생이라고 낮추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낮추고, 또 때로는 '내가 나다' 하고 울리거나 이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걱정 하나도 없이 심장이 웃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에, 자기 마음을 끌고 가는 자기 운전수한테 믿고 맡기라는데 세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고깃덩어리인 스님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의 주인에게 맡겨 놓고 지켜볼 줄 알아야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는 데 왜 못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 만물만생이 다 서로 돕고 삽니다. 나무는 공기를 저장했다가 인간에게 보급하고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놓아서 그 나무들에게 공급해 주어 먹고 살게 하죠. 그렇듯이 사장은 직원을 위해서 직원은 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회사를 위해서 양면이 다 뛰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평등하다 이 소립니다. 서로 주고받고 사니까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하셨다면 한 달 월급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지 않고 이 공부를 게을리 하신다면 게을리 한 것만큼 월급은 적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꼭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식이든 누구든 한 식구가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강압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는 강뽕밖에 못 찬다" 하며 욕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볼 적마다 야단을 하거나 이런다면 빗나가기 십중팔구입니다. 보금자리가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겠죠? 그와 같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거지만 둘째, 셋째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에 불이 들어와야 육신이 움직여가는 거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엇나가는 데 어떻게 그게 잡잡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뒤달을 해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은 물론이고 개미하고도 통하고 바퀴벌레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통하고, 지렁이 하나 곤충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식구하고 통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거, 이게 가설이 다 돼 있으니까 내 스위치 하나 누르면 식구들에게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폭넓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불을 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식구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러다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산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저 시장바닥에 나가 보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를 잘 보십시오. 모두 까리까리 모여서 삽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까리까리, 기사는 기사대로 까리까리, 공원들은 공원들대로 까리까리 모여서 삽니다. 또 시장에 가 보면 사과와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모두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스위치를 누를 생각은 안 하고 거죽으로 만날 그냥 야단법석을 하는 겁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고 "이놈아!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를 참아 가면서 입으로는 거품을 물고 야단법석이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고 '모두가 돌아다니잖아. 아빠의 주인공, 그 마음도 돌아다니니까 저 마음과 내 마음에 다 같이 불이 들어와서 광명세계를 찾을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야단법석을 했구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한 철 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워야 하나?' 하면서 '그저 돌아다니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세요. 그럼으로써 잘못 나가던 자식들도 생각을 잘하게 되죠. 그러고는 '아유, 바깥에서는 춥고 배고파도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해!' 하는 생각에서 고만다랭게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은 천 리 밖에서도 통하니까요.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니 실험을 해 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있는 사람에게 주인공에다가 놓고 한번 전화를 돌려 보세요. (가슴을 짚으시며) 이게 전화통이죠.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남의 집에 전화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남의 집에서 오는 전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죠. 당연한 일이지? 그래서 전화가 놓여 있으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를 돌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갔다가 집에 전화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전화를 하거든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법인데도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던 얘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얕은 마음은 좀 울리고 높은 마음은 조금 가라앉히고 하면서 중심에 놓고 중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멋진 살림살이죠. 이 세상에 아마 그런 꽃은 없을 겁니다. 잊고저게 천안에 있는 소년원에 갔는데 요만한 어린애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열세 살에서부터 스물세 살까지 몇천 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상징으로 무궁화꽃 가운데다 햇불을 세워 놓고 비둘기가 양쪽에서 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거 하나를 봐도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 게 없고요. 그게 인연의 법칙이죠. 만남이 있어야 자동적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창조력도 기를 수 있고 창조도 해낼 수 있는 거지 만남이 없는데 독불장군으로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해냈는데 모두 그 뜻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연꽃에다 해 냈으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요, 무궁화꽃에다 해 냈으면 나라의 법칙이요, 나라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꽃들이 모두 마음의 꽃을 상징한다면 마음을 일으키는 거를 불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불이고 마음의 지혜죠. 전부 돌아다니는 것을 상징해서 입을 마주 대 봤습니다.

모두가 모습은 다름지언정 생명도 돌아다니요. 마음 또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 낮은 산이 있으면, 우리가 부를 적에는 낮은 산 높은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본다면, 뒷면을 본다면 낮은 산이 있음으로써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저지 낮은 산이 없는데 어떻게 높은 산이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세계를 서천골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서천골, '서천골의 샘물은 바로, 젓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연결 연결 해서 돌아가니까,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나요. 지구가 일본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인간의 삶 자체도 태어나고 죽고 물집도 부서지고 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상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걸릴 게 있겠습니까.

몇천 년 몇만 년이나 보물을, 재산을 지니고 삽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자식들한테 물려주어도 하루아침의 벼락에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자기보다도 마음공부를 하는 데에 그 뿌리를 성성하게 해 주는 것이 제일이며 재산보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몸뚱이를 벗는다면,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방문 안에서 인사를 하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재물이란 언제나 감춰두게 마련이니까 나와서 인사나 할 수 있나요? 하하... 또 집이 아무리 좋다 한들, 땅을 아무리 많이 사 놔들든 죽어서 갈 때는 대문 안에서 고하고 말죠. 아무리 친한 친구나 자식,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 즉 말하자면 묘지나 화장터밖에 안 와 줍니다. 거기서 인사를 고향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악업 선업들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악한 짓을 했다면 악한 업이,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요다음 생애 나와도 역시 또 몸속에 침투해 가지고 또 그렇게 평생 고통을 시켜서, 아주 뭐 그 빛을 툭툭히 갚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마련입니다. 조금도 예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말 잘하던 것도 다 떨어지고 생각하던 것도 다 없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자체의 삶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요다음에 또 나와도 대통령으로 나와서 일을 아주 밝고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을 살릴 수도 있고, 큰 회사를 해서 직원들을 다 잘 먹여 살릴 수도 있죠. 모든 게 자기가 산 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얼마안 가면 이게 몸이나 생이나 하는 게 나옵니다. 모두가 꿈도 아니고 생지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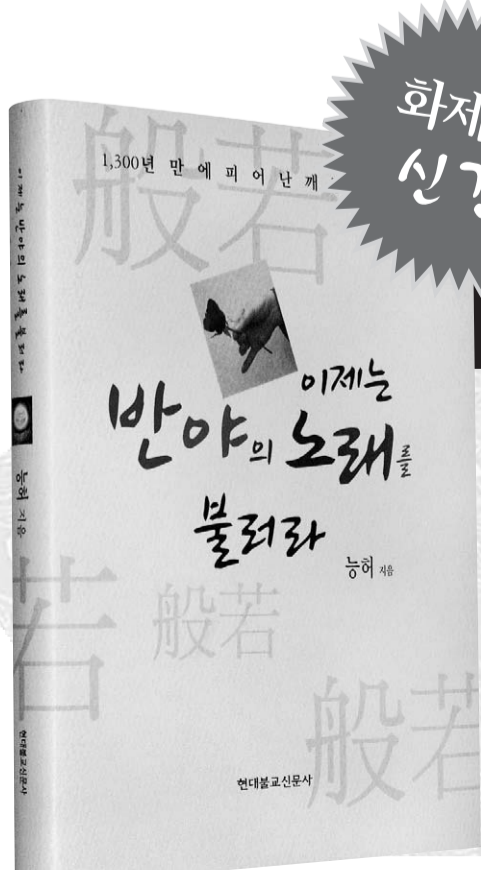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2년 5월 24일 대구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놓고 관찰하고 지켜본다면 하나하나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타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화제의 신간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재물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얕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경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요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령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따미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따미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반쪽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능허(能虛)가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 법문 중에서

- 본문 중에서